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음 10월 12일) 제21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떨어지는 낙엽 바라보며 늦가을 정취에 취해보며

서늘한 바람과 비가 내린 지난 16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전주향교 명륜당 앞에서 관광객이 떨어져 내린 낙엽을 바라보며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역대 최단기간 달성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연간 누계 무역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단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록이다.

이로써 한국은 2015~2016년 무역 1조 달러 클럽을 이탈한 이후 2017년부터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재진입했다.

특히 지난달 최단기간 수출 5000억 달러 돌파에 무역액도 최단기간 1조 달러를 달성함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무역액인 1조1000억 달러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품목별로 13대 주력품목 수출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집중도가 완화될 분위기다.

지역별로 10대 주요지역 가운데 중동을 제외한 9개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해 지역별로 고른 수출 성장세가 시현됐다. /김진영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동영 "부동산 적폐청산 첫걸음
문 정부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부동산 개혁 조치"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려는 취지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울 등에 이어 중앙정부가 공개 범위를 늘리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세분화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그중에서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는 지난 16일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부동산 개혁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등 개혁 조치들을 주저하는 사이 지난 1년 6개월



월 동안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1000조원 급등했지만, 이제라도 개혁의 고삐를 잡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빛내서 집 사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집인 토지와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면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한 과거 보수정부의 실패와 결별하고,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혁 조치에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전면 개혁,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되, 공개대상을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S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11월 14일 이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본인의 결정인지, 또 지난 5년간 S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 김승환 교육감 혐소심서 별첨형

전북도, 도 출연기관 12곳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302명 중 246명

전북도는 지난 9일 전북테크노파크를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12개 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302명 중 246명(81.5%)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

지난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출연기관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로 나누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인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474명(기간제

362명, 파견·용역 112명)이 전환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의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상시적인 업무는 당해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말하고, 지속적인 업무는 향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도는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도 연내에 마무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제17회 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11월 24일(토) 오후 3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문의: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063-288-9700)